

새정치 광주·전남 재보선 공천 키워드

‘신구 조화’

참신한 인재들 과감히 등용
1~2곳은 거물급 전략공천
침체된 호남 정치 복원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공천 전략으로 ‘거물급이나, 새 인물이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재보선 공천의 성공 키워드는 ‘신구 조화’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 재보선 선거구가 4곳인 만큼 참신한 인재들의 과감한 등용과 더불어 1~2곳의 선거구는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중진급의 정치거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본격적으로 7·30 재보선 후보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새 인물과 중진급 후보들이 대거 공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 광산 을과 나주·화순, 순천·곡성,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4곳에서 치러지는 광주·전남지역 재보선에는 현재 정치 신인들과 중진급들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재보선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진급은 김효석·전정배·최인기·홍기

훈 전 의원과 송영오 상임고문 등이 있다. 이에 맞서 서울 등지에서 활동해온 출향 인사와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정치 신인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고 ‘일전’을 준비중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공천을 놓고 ‘거물급이나, 새 인물이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진들의 호남 출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게 사실이다.

호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중진들이 당선이 보장된 안전한 호남을 택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도리에 맞지 않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참신한 정치 신인 발굴을 우선시하되, 1~2곳의 선거구는 중진급 인사 중에서도 ‘올드보이’가 아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를 상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해 호남 정치를 이끌어갈 거물급 정치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정치’의 쇠퇴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호남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지역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고질화된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증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과 뚜렷한 대권주자나 당권주자도 없다는 ‘호남 인물 부재론’이 여론 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을 통해 세대교체와 함께 ‘신구 조화’를 적절히 이뤄 호남 정치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참신한 새 인물을 등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호남 정치력을 복원시키고 이를 이끌어 갈 거물 중진급 인사도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단원과 2학년 71일 만에 눈물의 등교

2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며 71일 만에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따로 野 따로...세월호 국조 ‘난항’

새정치, 목표해경서 초동대처·진도 VTS 편집 의혹 조사

새누리, 인천여객터미널 찾아 승선권 발권·개찰 현황 확인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5일 목표와 진도를 방문, 현장 조사 활동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우원식·부좌현 의원 등 야당 특위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목표해양경찰서에 도착해 김문홍 서장으로 부터 초동조치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예초 상황보고(7분) 이후 비공개 예정이었던 현장조사는 김현미 간사 요청으

로 일부 질의 답변이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의원들은 세월호 선체에 진입하지 않고 무전기(TRS)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123정에 구조 지시를 내린 이유 등을 물었다. 우원식 의원은 “최초 신고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퇴선하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해경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해경 헬기에 왜 방송 시설이 없는지, 122구조대가 헬기 대신 차량으로 이동했는지, 당시 구조된 단원과 교감을 상대로 5시간 동안 조사하며 시간을 허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준석 선장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잠을 재운 해경 직원도 직접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일부 초동 대처 등에 대해 특위 의원과 해경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위 의원들은 해경 현장 조사를 마친 이후 해군 3함대 사령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방문해 조사 활동을 이어갔다. 3함대 사령부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사고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VTS에서는 세월호 관제의 적정성과 교신내용 편집 의혹

세월호 참사 71일 째
실종 11·사망 293명
※ 25일 오후 8시 현재

등을 조사했다. 반면, 이날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인천에서 현장조사 활동을 벌였다. 여야가 아직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여당 특위 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인천을 찾아 연안여객터미널,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인천해양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해 안전운항 관리, 세월호 출항 당시 상황, 세월호 운항관리 지도·감독 실태 등을 점검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복귀 시기는 법리해석 뒤 확정

광주 3명·전남 4명 전임 근무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전임자에 대해 현직 복귀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은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돼 전교조 광주지부에 복직을 요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점이 있는 만큼 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해석을 거친 뒤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교육국장 회의를 다녀온 정우

성 교육국장도 “교육부가 다음달 3일까지 못을 박았지만 전교조가 항소와 가처분을 동시에 낸 상태여서 교육청이 복귀명령을 언제 내릴지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전교조 전남지부의 전임자에 대해 비슷한 입장이다.

법원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거부할 수 없어 조만간 복귀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시기를 협의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복귀명령을 즉시 내릴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지를 놓고 교육부의 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부장·수석 부지부장·사무처장 등 3명이, 전남지부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 등 4명이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BRASIL 2014

<관련기사 18·19면>

내일의 월드컵 (27일·한국시간)

대한민국	H조 오전5시	벨기에
알제리	H조 오전5시	러시아
미국	G조 오전1시	독일
포르투갈	G조 오전1시	가나

월드컵 스코어 보드

이탈리아	0:1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0:0	잉글랜드
일본	1:4	콜롬비아
그리스	2:1	크로아티아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순천 해룡일반산업단지 분양

대우건설

1단계 임대단지 분양완료 (포스코 광양제철소 배후단지 분양)

순천IC, 국도17호선, 국도1호선, 여수, 광양항, 순천, 여수, 순천, 여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여수, 순천, 광양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떠오르는 투자중심지!

순천 해룡일반산업단지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7월 분양예정 즉시 입주가능

- 우수한 접근성**
 - 자동차 10분거리내 4개 고속도로 연결(남해, 순천-원주, 호남, 영암-순천)
 - 여수공항 자동차 약 10분거리 근접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까지 20km
- 미래 투자가치**
 - 강성지반으로 추가 조성비 불요
 - 인근 산단대비 초기 분양가 저렴
- 산업Belt 중심**
 -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연관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촌산업단지 중심축에 위치

분양문의 061 721-3463
http://ic.daewoocnc.com/sc

시행 시공 대우건설, 덕흥건설, 참여 기관 Gr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